

## 한반도 역사 바꾼 20세기 마지막 대상륙작전

■ 9 · 28 서울 수복 전기 마련한 9 · 15 인천상륙작전



유호상 국방저널 기자 (hosang61@dema,mil,kr)

6 · 25전쟁의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킨 20세기 마지막 대규모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인천 월미도 앞바다에 서 실시된 인천상륙작전을 이렇게 정의 내 릴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감행된 노르망디 상륙작전보다 더 도발적이고 대 담하며 무모했던 상륙작전이 곧 인천상륙 작전이다. 세계 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작전의 감행에 71세의 노장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5성 장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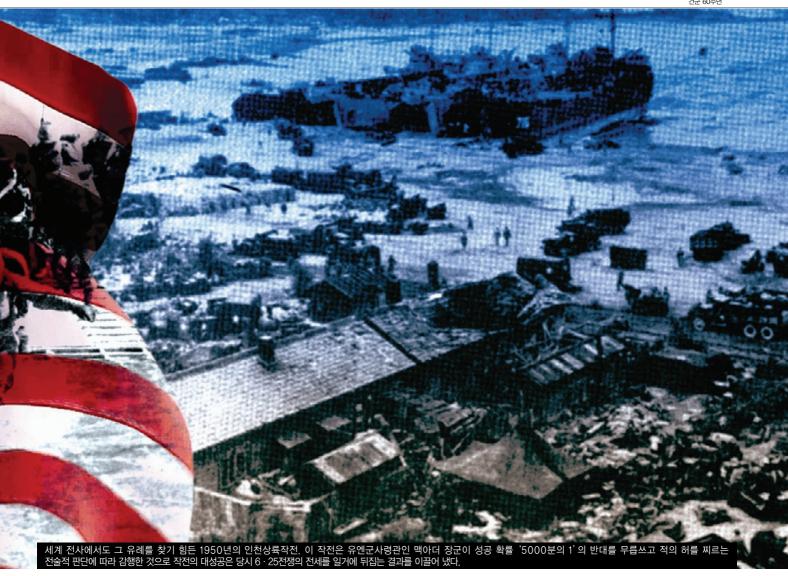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무력 도 발로 한반도의 남쪽은 졸지에 쑥대밭이 돼 버렸다. 사흘 만에 수도 서울 함락, 파죽지 세로 남하하는 북한군의 도발에 속수무책 으로 밀려 8월 4일에는 낙동강 방어선을 최 후선으로 여기고 한국군과 미군은 견고한 방어벽을 구축했다. 전쟁이 두 달 가깝게

진행돼 가자 북한군은 조금씩 지쳐 갔으며 탄약과 보급품이 고갈돼 가는 가운데 낙동 강 전선 안쪽의 한국군과 미군 등 연합군에 는 증원 병력과 물자가 끊임없이 보급됐다.

북한군의 예봉이 꺾이기 훨씬 전부터 맥 아더 장군은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극적인 우회 상륙작전을 펼쳐 북한군의 보 급선을 차단하고 38선 이북으로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계획했다.

맥아더 장군의 이런 구상에 동의 · 동조 하거나 설령 계획을 감행해도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1950년 9월 15일 감행된 대규모 인천상륙 작전은 맥아더 장군의 의지에 따라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당시 수세에 몰렸던 전세도 단번에 역전시켜 한반도 역사의 방향을 180도로 바꾼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 인천상륙작전 최초 구상

북한의 남침이 사실로 확인됐을 때 미국 은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의 긴급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주한 미 국인의 후송과 한국에 필요한 군수물자의 수송, 그리고 이러한 조치와 관련되는 극동 미 해 · 공군의 지원을 주일 연합군총사령 관맥아더 장군에게 지시했다. 주일 연합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자신의 관할권 밖의 국가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범위 안에서 가장 신속한 조치 를 취했다.

6월 27일 먼저 처치 준장을 단장으로 조 사단을 한국에 파견, 위기의 한국 사태를 보고받았다. 처치 장군으로부터 전황 보고 와 함께 38도선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서는 미 지상군이 투입돼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다. 그 보고를 받는 날이 곧 수도 서울 이 적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맥아더 장군이 우려하던 절박한 사태는 현실이 돼 버렸다.

이틀 뒤인 6월 29일 새벽 맥아더 장군은 '미국이 지원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을 찾고자 직접 한국 전선 시찰에 나섰다.

기상이 좋지 않을 뿐더러 적의 공중 공 격도 계속되는 외중에 적기의 공중 공격으 로 불타고 있는 수원비행장으로 향했다.

한국 전선 시찰은 미국의 지원을 즉각 적·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표였다.

1시간 가량의 전황 보고를 받은 뒤 차를 타고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국도를 달렸 다. 빗발치는 적의 포탄을 뚫고 한강 조금 못 미쳐 나지막한 고개에서 차를 세운 맥 아더 장군은 피난 행렬을 내려다보면서 자 신이 떠맡아야 할 한국의 비극적 현실을 셈했다. 한강 변에서 1시간 가량을 구상했 던 작전은 훗날 '맥아더 회고록'에서 이 렇게 기록하고 있다.

"공군과 해군을 지원해도 남진하는 적을 한국군이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가능한 방 법이라고는 우리 지상군의 즉각적인 투입 뿐이었다. 이 난국에 대처하는 길은 내 휘 하의 주일미군을 투입하는 것이다. 설사수 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열세에 놓일지라도 전 략적 기동 방법에 의존한다면 역경을 이겨 낼수 있을 것이다.…만약에 주일미군의 가 용한 수송 수단과 수송에 소요되는 시간의 획득 방법, 일본의 방위 문제, 한국군의 재 건과 사기 진작 등이 이루어지고 반면에 적 의 빈약한 병참선이 위험 한계에 다다를 경 우이 병참선을 차단하고 얼마 안 되는 가용 병력으로나마 적의 주력부대를 포위 · 격 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가운데 인천상 륙작전이 착상됐고 그것은 패배를 승리로 바꿀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미 합동참모본부에 미 지 상군 투입을 건의하는 한편 참모장 아몬드 소장에게 상륙작전의 계획 수립을 지시했 다. 한강 전선 일대에서 상당 기간 적을 저 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처음부 터 인천을 상륙 대상 지역으로 고려한 최 초의 상륙작전 기본 계획서에서는 불완 전하게나마 상륙전 훈련을 받은 주일 미 제1기병사단을 상륙부대로 내정하고 있었 다. 그러나 전선 상황이 급변해 적전 상륙 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보다 숙련된 상륙부 대가 절실히 요구됐다.

7월 4일 미 극동군사령부에서 상륙작전 을 위한 최초의 공식적인 회의가 소집됐 다. 상륙전 전문가와 미 해병대 간부 등 해 군 · 해병대 장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상륙작전의 개략적인 유곽이 드러났으나 작전 중에 예상되는 위험 부담이 집중 제 기됐다. 해군 · 해병대 합동후련단의 후련 여건과 출동 여건도 좋지 않아 우선적으로 1기병사단을 가능한 빠른 시간 동안 상륙 작전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어 전선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돼 7월 8일 블루하트 작전은 낙동강 방어선을 보 강하기 위해 1기병사단을 부산에 상륙시 키는 단순한 이동으로 끝났다.

이 작전은 다시 부산에서 112km 떨어진 포항에 상륙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상륙 은 아무런 저항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 다. 부산항이 지나치게 붐볐기 때문에 항 만 시설을 갖춘 포항을 설정한 것. 그렇다 고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의 필요성이 근본 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이후 2개월 후 에 있을 작전의 최초 계획 수립에 크게 이 바지하는 기초가 됐다.

#### '크로마이트 작전'으로 명명

블루하트 작전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기는 했지만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의 보급 선을 차단하고 그들의 후방에 교두보를 구 축. 낙동강 전선 돌파를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작전이 성공 하면 북한군은 멀리 떨어진 2개 전선에서

전투를 벌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 물 질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뻔했다.

인천상륙작전은 착상이 뛰어나고 과감 하며 이례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작전에 참여할 부대를 서둘러 소집했기 때문에 훈련과 예행연습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미 해병사단의 증파를 거듭 요구하는 가 운데 맥아더 장군은 극동군사령부 안에서 상륙작전 구상에 다시 들어갔다. 상륙 지역 으로 인천을 가장 크게 떠올리는 가운데 동 시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연 구 ·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작업을 맡게 된 합동전략계획단은 인 천 · 군산 · 해주 · 진남포 · 원산 · 주문진 등 가능한 모든 해안 지역을 일단 대상으로 검토하고 상이한 몇 개의 계획을 수립했다. 드디어 7월 23일 크로마이트(Chromite) 작 전 계획의 초안이 만들어졌다.

9월 중에 실시될 이 상륙작전은 ▲서해 안의 인천에 상륙할 100-B 계획 ▲서해안 의 군산에 상륙할 100-C 계획 ▲동해안의 주문진 일대에 상륙할 100-D 계획 등 3개 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군산은 적의 후방 에 그리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 었고 상륙군이 부산에서 후퇴하는 북한군 과 너무 빠르게 만날 가능성이 높았다.

북한군의 부차적인 보급선이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문진에 상 륙하면 서울을 통과하는 적의 주보급로를 차단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륙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다. 결국 인천상 륙작전이 대세였다.

8월 23일 도쿄의 극동군사령부에서 고 위 지휘관 회의가 열려 이 자리에서 인천 상륙작전 계획이 나왔다. 그러나 조석과 지형. 월미도와 같은 물리적인 제약 등을 들어 참석한 해군 지휘관들은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군은 특히 월미도가 강력히 요새화돼 있을지 모르며 북한군이 월미도에서 상륙 해안 전체를 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





다. 이에 따라 3, 4일간의 사전 포격을 권고 했지만 극동군사령부의 참모들은 그처럼 장기적인 포격이 전술적인 기습 효과를 감 소시키고 북한이 상륙에 대응해 부대를 이 동시키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맥아더 장군은 서울을 수복해 10만 명의 인명을 구 조하고 크리스마스까지 전쟁을 끝낼 수 있 기를 바라며 자기의 주장을 마무리 지었다.

맥아더 장군이 주장하는 인천상륙작전 의 당위성은 이랬다.

전략적 · 심리적 · 정치적 이유를 들어 수도 서울은 신속히 탈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 이 바로 인천 상륙이며 기습의 효과로 이 작전은 가능하다는 것.

특히 적이 후방에 대한 대책이나 예비도 없이 그 주력을 낙동강 전선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과도하게 신장된 적의 병참선은 서 울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는 데 착안, 인천 상륙으로 일격에 적 후방을 차단해 전쟁을 조기에 종결 짓자는 주장이었다.

#### '성공률 1/5000' 우려 불식시켜

낙동강 전선의 정면 공격만으로는 10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것이며 전쟁도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은 또 인천 상륙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지역의방어에 소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참석한 육군소장도 작전 자체가 너무 잘 못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하며 기습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라고 맥아더 장군의 주장에 동조했다. 한반도에서 가장 부적 합해 보이는 항구를 선정한 것에 대한 반 대 의견도 높았다.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하고 수로가 협소하며 기동 공간이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때 맥아더 장군은 "적의 지휘관도 그런 시도를 할 정도로 무모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적의 허를 찌르는 것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맥아더 장군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인천, 그리고 서울을 공 략함으로써 적의 보급선을 끊어 놓고 반도의 남쪽 전체 에 봉인을 붙여 놓겠습니 다.…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적의 보급 체계를 완전히 마 비시켜 놓겠습니다. 미8군 을 지휘하는 워커 장군과 대 치하고 있는 적군의 전투력 을 마비시키게 될 것입니다. 탄약과 식량이 떨어지면 적 군은 곧 절망하고 와해될 것 이며, 이렇게 되면보급상 태가 좋은 아군의 소규모 병 력만으로도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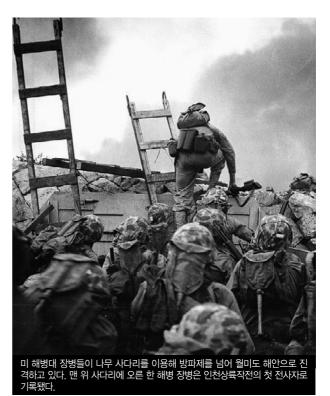
성공확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한 장성의 말

도 맥아더 장군의 확신에 찬 작전 의지에 밀려 어느새 회의 분위기는 인천상륙작전 추진으로 굳어졌다. 이후 작전 계획은 다시수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고 미육군과 해군·공군·해병대 등의 부대 창설과임무 변화 등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1950년9월 10일 호위 항공모함 등에서 출격한 전폭기들이 월미도를 초토화시켰다. 해군 항공모함에 탑재된 비행기들도 12일과 13일인천과 서울을 폭격했다.

9월 13일 수요일, 연합군 순양함 4척이 인천항으로 향했고 미군 구축함들도 적 해 안 포대를 대적하기 위해 합류했다.

다음 날 4척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적의 방어 보루를 날려 버렸으며 15일 7개국에서 온 261척의 유엔군 함대가 비어도 해협을 통과해 들어갔다. 폭격기와 구축함의 무차별 폭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15일 0시 12분, 팔미도 등대에 불이 밝혀지고 성조기가 펄럭이면서 인천상륙작전의 신호탄이 터져 연합군 함대가 물밀듯이 인천항으로 밀려 들어갔다.

상륙 시간은 이날 오전 6시 30분으로 확 정됐다. 그리고 월미도에 미 해병대 5연대



의 한 대대가 상륙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은 대성공을 거두며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위기

에 놓여 있던 한국의 유명을 되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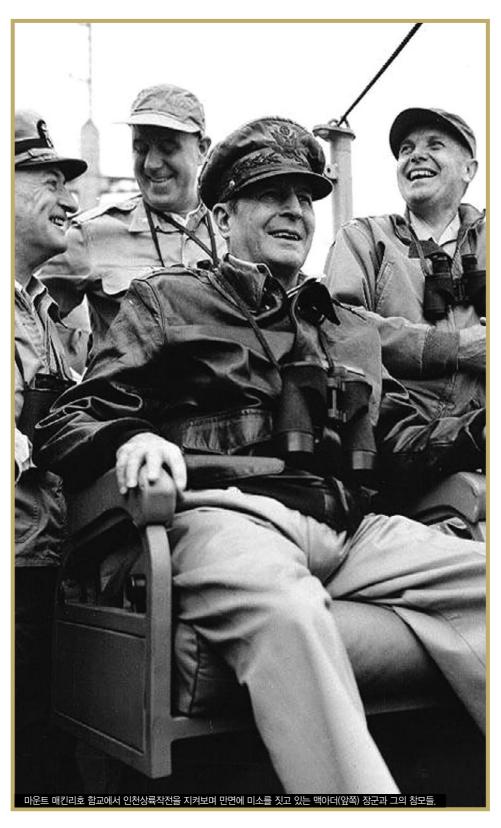
상륙작전 날짜는 1950년에 상륙함과 상륙정을 띄울 수 있는 만한 수위가 되는 날은 9월 15일, 9월 27일, 10월 11일뿐이었다. 9월 15일이 최적의 날짜로 맥아더 장군은 다른 날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 상륙 날짜도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 상륙작전 당일 상륙군으로부터 섬에서 강력한 요새를 만들기 위해 새로 기초 공사를 해놓은 것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맥아더 장군에게 들어온 것.

자칫 다음번 만조 때까지 기다렸다면 이 요새를 상대로 심각한 전투를 치러야 했고 자칫 인천상륙작전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사에 길이 남을 인천상륙작전은 한 백전노장의 분명한 전술적 판단과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한 노련함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상륙작전의 고전'으로서 오늘날까지 군사 연구가들이 끊임없이 연구ㆍ분석하며 교훈을 얻는 작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 소신과 뚝심으로 무장한 '영원한 현역'

■ 맥아더 장군은 누구인가



맥아더 장군이 크로마이트 작전의 워 동력이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가 이 작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굳은 의지와 인천 상륙작전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관에 대한 항명과 부하들의 조언도 무시하는 행동까지 보인 만큼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분

맥아더 장군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장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대중적 인기가 높은 전쟁 영웅임 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맥아더 장군은 1880년 1월 26일 미국 아칸소 주 리틀콕의 명문 군인 집안에 서 태어났다. 아버지인 아서 맥아더 또 한 전쟁 영웅 출신의 고위 장군이었다. 맥아더 장군의 상징은 항상 파이프 담배 를 물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특유의 멋쟁 이 스타일이다. 얼굴도 미남인 데다 항상 품위 있고 고상한 말투는 그만의 독특한 카리스마.

외모 못지않게 실력도 출중하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맥아 더 장군은 탁월한 지휘력을 발휘해 수훈 십자상 2개, 은성훈장 7개 등 10개가 넘 는 무공훈장을 받았다. 1930년에는 별 네 개의 대장으로 진급해 미 육군에서 가장 높은 지위인 참모총장에 임명됐다.

맥아더 장군은 '보너스 행렬' (1932년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이 약속된 참전 보상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 한 집회)을 직접 진압했다. 이것은 대단 히 불미스러운 조치였고 이 때문에 많 은 비난을 받았다. 1935년 필리핀 정부 의 군사 고문이 됐으며 1937년 현역에



서 물러났지만 필리핀 정부의 군사 고문 지위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1941년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자 그해 7월 26일 현역으로 복귀해 극동군사령관에 취임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일종의 컴백 무대가 된 셈. 필리핀 방어 임무는 그러나 일본의 거센 공격에 부딪혀 결국 1942년 한밤중에 고속정으로 필리핀을 탈출하는 수모를 안겼다. 이때 맥아더 장군은 "나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으며 1944년 필리핀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그 약속을 지켰다.

호주로 부임돼 남서태평양지구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맥아더 장군은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섬에서 일본 과 격전을 치렀다. 이때 그가 구사한 전법은 '개구리 뛰기' 또는 '섬 건너뛰기'전술.

일본군이 많이 주둔해 있고 방어 태세가 견고한 섬보다 중요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방어가 약한 섬을 공략하는 것. 비교적 인명 손실이 적어 섬을 장악하고 신속히 비행장을 건설한 뒤 항공기로 지속적인 보급선차단 작전을 구사해 일본군 핵심 방어 지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비행장을 운용할 만한 섬을 징검다리 건너듯 공격해서 '개구리 뛰기' 라고 불렀다. 이 전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1943~44년 미군이 일본군의 핵심 기지였던 라바울을 포위해 무력화시킨 수레바퀴 작전이었다.

1944년 12월 18일에는 죽을 때까지 계급이 유지되는 명예로운 별 다섯 개의 원수(General of the Army)로 임명됐다. 맥아더 장군은 다음 목표로 일본 본토를 공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1945년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전쟁은 끝났다.

그해 9월 2일 일본의 항복 문서를 받는 명예를 얻었고 전쟁이 끝나자 최고 등급의 훈장인 의회 명예훈장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 극동군총사령관이 된 맥아더 장군에게 군국주의 일본을 해체시키고 보다 민주화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임무가 주어졌다. 사실상 일본 통치자가 된 셈. 하지만 70세를 바라보는 노장에게 또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바로 1950년 6월 25일 한국에서 전쟁이 터진 것.

그해 7월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을 격퇴하기 위한 유 엔군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세계 전사에 길 이 남을 '9·15 인천상륙작전'의 대 담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작전을 끝까지 감행하 려는 고집에 모두가 반대했다. 특히 맥아더 장군보다 12년 늦게 군 생활을 시작한 후배지만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오마 브래들 리 합참의장은 인천상륙작전 계획에 대해 "지금까지 전해 들은 작전 계획 중 가장 위험한 제안이며 공상적인 계획이자 성공 가 능성이 가장 희박한 상륙 장소"라고 혹평했다.

미군 수뇌부 대부분이 이 작전의 포기 또는 연기 등을 권고했지만 사실상 군 선배 격인 맥아더 장군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이 작전은 20세기 마지막 대규모 상륙작전으로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불리했던 당시의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키는 발판을 제공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중공군의 개입으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확전 의지를 미 정부에 수차례 밝히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과의 전면전은 소련군의 직접 참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곧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리 트루먼 대통령 등 미국 지도자들은 전쟁 확대에 매

우 부정적이었다. 이후 격렬한 의견 대립 끝에 트루먼 대통령은 1951년 4월 11일 그

를 보직에서 해임했다. 그리고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 참석, 당시 군 가 가사 중의 후렴 구절인 "노병 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 이다"라는 명연설을 마지막으로 53년의 군 생애를 마감하며 모든 공

직에서 물러났다.

71세의 나이에 은퇴생활에 들어갔지만 그가 아시 아와 태평양 문제에 있어서 그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했다. 1964년 4월 5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중의 한 명이며 영원한 현역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워싱턴의 월터리드 육군 병원에서 서거했다. 맥아더 장군은 분명 위대한 전쟁 영웅임에는 틀림없다. 58년전 맥아더 장군이 단행한 인천상륙작전은 꺼져 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단번에 바꿔 놓은 일대 사건으로 어떤 이유로든 은인으로 극찬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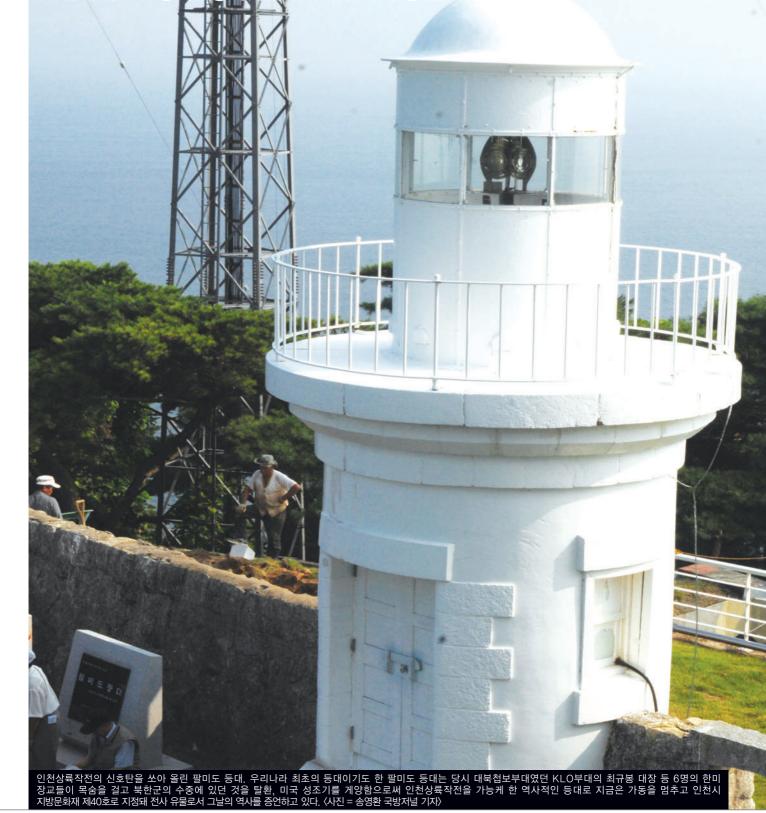
미군 등 유엔군과 북한군·중공군·소련군 등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첫 이데올로기 전쟁의 승 패를 구분 짓는 데 탁상공론을 늘어놓기에 앞서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그것만으로도 충 분히 고마워해야 했던 것이 당시 대한 민국의 현실이었다는 점을 인

정해야한다. Defense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

# 15일 0시 등댓불 켜지자 작전 감행

'한국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세계 전사에 영원히 기록





#### ■ 팔미도 등대 탈환 작전

유호상 국방저널 기자 〈hosang61@dema.mil.kr〉

1950년 9월 15일, 6 · 25전쟁 승리의 전기를 마련한 인천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더불어 불가능을 가능케 한 작전으로 세계 전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쟁사에 기록되고 있다.

불가능의 역사를 가능으로 이끈 것이 바로 팔 미도 등대 탈환 작전이다. 등대 탈환의 주인공은 유진 클라크 미 해군대위와 클락혼 미 육군소령, 존 포스터 미 육군중위, 계인주육군대령, 연정 해군소령, 그리고 최규봉 KLO(대북첩보부대) 고트(Goat) 대장 등 6명이었다.

인천항 서방 13.5km 해상에 떠 있는 팔미도는 남북의 두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쪽 섬의 58m 정상에 등대가 서 있어 인천만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천혜의 섬이다.

인천만을 넓적한 모습의 얼굴에 비유하고 그 것을 황해에서 쳐다본다고 하면 인천항과 육지 해안선은 머리칼과 이마의 접경선에 해당하고, 영종도와 대부도는 좌우의 귀, 그리고 팔미도는 코나 입 자리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략적 요충 도서가 곧 팔미도인 셈이다.

1903년 세워진 팔미도 등대는 우리나라 등대의 효시이며 지난 1세기 동안 인천만 전체를 내려다 보며 출입하는 선박의 교통정리를 담당해 왔다.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의 첫 시작도 이곳 팔 미도에서 일어났으며 러시아 함대의 참패는 곧 일본군의 승리로 이어진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 팔미도로서 만약 그 섬에 포대나 기관총 부대라도 있다면 지나는 선박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또 그 섬에서 기뢰를 바다에 띄운다면 항해하는 선박은 그만큼 침몰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밤에 함대가 섬 옆을 지날 경우 등대에서 불을 밝혀 해로를 비춰 주는 일이다. 때문에 팔미도에 주둔 중인 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상륙작전의 핵심일 수밖에.

이에 따라 인천상륙작전 때 맥아더 사령관은 팔미도에 주둔해 있는 적의 실태 파악이 급선무 였다.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된 1950년 9월 14일 저녁 7시

"15일 0시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혀라!" 라는 맥아더 사령관의 암호 명령이 떨어졌다.

6명의 특공대는 1시간 뒤 어둠을 뚫고 팔미도로 접근, 숨을 죽인 채 섬에 상륙해 등대 쪽으로올라갔다. 적은 2개 분대.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면서 총공세를 펼친 끝에 밤 10시 등대를 점령했다. 그러나 점등 장치의 나사못이 빠져 점화 불능 상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진맥진등대 바닥에 엎드려 있던 최규봉 대장의 손에차가운 물체가 잡혔다. 1시간 반 동안 찾아 헤맸던 나사못이었다.

9월 15일 0시 12분, 나사못을 끼우자 등대에 불이 밝혀졌다. 클라크 대위가 배낭에서 성조기를 꺼내 최 대장과 함께 등대 서쪽에 매달았다.

등댓불은 돌면서 마침 알맞게 불어오는 바람 에 따라 성조기도 펄럭였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 오자 바다 멀리에서 동쪽을 응시하며 등댓불이 밝혀지고 성조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맥아더 사령관과 참모들의 망원경으로 드디어 게양된 성조기가 한눈에들어왔다.

만면에 미소를 지은 맥아더 사령관은 드디어 인천만 외항 멀리에 집결한 유엔군 함대 261척 에 인천 앞바다로 진격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곧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키 워드, '팔미도 등대 탈환 작전'의 전모다.

6명의 특공대 면면을 살펴보면 계급이 중간급 인 클라크 해군대위가 팀장을 맡았다. 이는 미 정보국에서 한반도의 해안 정보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처음부터 인천상륙작전 계획 수립에 깊 이 관여한 때문이었다. 특히 팔미도 작전 계획도 그가 주도해 수립했고 미 해사 출신으로 인천 주 변 관련 자료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

클락혼 소령은 일반 대학 출신이면서 해양학 의 공학사 학위를 가진 해저 측량, 해류 조사 및 분석 전문가다. 포스터 중위는 미육사출 신 엘리트로 통신공학 전공의 전형적인 군 인으로 클라크 대위를 적극 보좌해 특공대 로 뽑혔다.

계인주 대령은 탈영이라는 과거가 있긴 하지만 능력만큼은 출중해 선발됐다.

연정 소령은 내력이 많이 복잡하다. 일제 시대 학병 신분으로 광복을 맞아 국방경비 대(국군의 전신)에 들어가 좌익 계열인 학 병연맹에 가입했다가 말썽이 일자 해군으 로옮겼다.

이후 거물 간첩(신불출)의 북한 탈출 길 을 터 줘 체포 명령이 내려지자 일본으로 밀항하다 미 해군에 붙잡혔다. 그러나 미 해군 정보 당국은 그를 첩자로 역이용해 왔다. 6 · 25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미 고 위층에 원대 복귀를 간청. 특공대로 선 발됐다. 팔미도 탈환 작전에서도 이런 그의 내력을 알고 있는 다른 대원들은 그 가 이적 행위를 할 것을 우려 개별 행동 을 못하도록 감시했고 무기도 갖지 못하 게 했다.

최규봉 대장은 6 · 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대북 첩보 활동. 군표 위조범 체 포 등 공로가 있어 맥아더 사령부에서는 일찍부터 그를 주목하고 있던 차에 전쟁이 일어나자 인천만에서의 정보 수집 활동과 팔미도 탈환 및 등대 점화 작전을 맡겼다.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혀 인천상륙작전 을 성공으로 이끈 특공대 중 군인 5명에게 는 미 은성무공훈장이 수여됐고 최 대장에 게는 등대에 게양했던 성조기와 맥아더 장 군이 친필 서명한 사진이 증정됐다. 그 성 조기는 최 대장의 기증으로 현재 미 버지 니아 주에 있는 맥아더장군기념관에 전시 돼 있으며 사진과 감사장은 서울 용산 전 쟁기념관에 전시돼 있다.

팔미도 등대 탈환 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58년이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 에 찾은 팔미도. 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주 관 청소년 안보 대장정에 오른 청소년 40 여명, 6·25 참전용사 20여분 등과함께 해군의 냉동정(도서 지역 주부식 수송 함 정)에 몸을 싣고 1시간 남짓 바닷길을 달려 도착한 팔미도에는 해군 전탐감시대 장병 20여 명이 외로운 섬을 지키고 있었다.

이미 제 역할을 다하고 58년 전의 역사 를 간직한 채 불 꺼진 등대 바로 옆에 국토 해양부가 세운 신식 등대가 인천항의 뱃길 을 안내하고 있다.

안보 대장정에 참가한 한보현(22 · 관동 대 4년) 양은 "말로만 듣던 팔미도를 찾아 역사적인 등대를 직접 보게 돼 가슴 뭉클 하다"며 "등대를 탈화하지 못했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할 수 없었고. 국가의 운 명도 사라지며 지금의 나도 존재할 수 없 었겠다는 생각까지 미치니 새삼 당시 작전 에 참가한 어르신들의 살신성인적 작전 수 행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고 팔미도 등 대 탐방 소감을 말했다 Defense



군기념사업회 주관 청소년 안보 대장정에 오른 학생들이 팔미도 등대에서 팔미도 탈환 작전에 참가했던 최규봉 KLO 대장으로부터 당시 작전의 경과와 인천상륙작전의



#### 인터뷰 군번 없는 KLO 부대 **최규봉** 대장

### "팔미도 등대 성조기 내가 걸었다"



유호상 국방저널 기자 (hosang61@dema.mil.kr)

"처음에는 '모윤숙구출 작전' 이라고 듣고 부산에서 109호를 탔는데 인천으로 향하더군요. 대북첩보부대인 KLO(Korea Liaison Office) 부대원 20여 명과 함께 탔으며 배 안에서 계인주 육군대령과 연정해군소령도 봤습니다."

8월 14일 오후 팔미도를 향하는 해군 함 정 안에서 만난 팔미도 등대 탈환 작전의 주 인공, 최규봉(86 · 서울 중구 신당동 · 사 진) 옹은 당시 작전에 참가 한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 며 말문을 열었다.

1950년 7월에 이미 일 본 도쿄의 극동군사령부 로부터 팔미도 작전의 내 용을 일부 받았지만 정확 한 작전 시행 날짜를 몰랐 었다는 최 옹은 "14일 야 밤에 벌인 공산군과의 교 전으로 허벅지 관통상을 입기도 했지만 오직 한 가 지, 반드시 등댓불을 밝 혀야 한다는 일념이 흐르 는 피의 고통도 잊게 했었 다"고 회상했다.

전쟁 중에 맥아더 장군 을 처음 만날 때도 또렷하 게 기억하고 있었다.

"9월15일 오전11시 팔 미도에서 작은 배를 타고 유엔군 함대의 기함 마운 트 매킨리호에 안내됐습

니다. 우리 6명 모두는 피와 땀 냄새로 범 벅이 된 상태였으며 나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기운조차 없었지요. 사령관 접 견실로 들어가 맥아더 장군을 만났습니 다. 부상이 심해 맨 나중에 소개받았는데 맥아더 장군이 대뜸 '잘했어. 바라는 것이 있으면 뭐든 얘기하라'고 했지요."

이런 질문에 처음에는 "남북통일입니다"라고 하자 "그것 말고는 또 무엇이오"라고 맥아더 장군이 질문해 팔미도 등대에 걸었던 성조기를 가리키며 "저 기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최 응은 털어놓았다.

생명과 같이한 성조기였으며 역사를 바 꾼 작전을 상징하는 표적물이었기에 주저 없이 그 성조기를 요구한 것.

이에 대해 맥아더 장군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단다.

그 성조기가 인천상륙작전을 명령하는 국가의 상징적인 공물(公物)이며 거기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유일무이한 국기인 까닭에서다. 따라서 민간인에게, 그것도 외국인에게 그런 뜻 깊은 상징물을 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서 잠자코 있었던 것.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그 성조기를 최 대장에게 주었고 거기에 덧붙여 다음 날 '나의 동지, 최규봉 씨에게! 당신의 전우 더글러스 맥아더로부터'라고 서명한 큰 독사진까지 주었다. 그리고 1957년 11월 8일에 다시한번 감사 편지를 보냄으로써 진솔한 전우애를 나타냈다. 그 사진과 편지 원본은현재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소장돼 있다.

이 역사적인 성조기는 이후 미국 측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돌려 달라는 간청이 있었으나 최 대장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 언론인은 당시 10만 달러에 팔 것을 권유했으나 이마저 거절했다. 하지만 최 대장은 맥아더 장군이 주었기 때문에 맥아더 장군에게 돌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 1956년 맥아더장군기념관에 기증했다.

최 옹은 "맥아더 장군이 운명할 때까지 고맙게 생각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그 성조기를 금고에 잘 보관했다는 말도 들 었다"며 "작전에 참가한 5명의 군인 모두 미국 정부의 은성무공훈장을 받았고 나는 민간인으로 훈장을 받지 못했지만 역사의 상징물을 가졌었다는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Defense]

### 서울 수복 선봉에 선 해병대·육군17연대

#### ■ 9 · 28 작전 성공 이룬 국군의 의지



1950년 9월 28일은 6 · 25전쟁을 일 으킨 북한 공산군이 남침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한 후 3개월 뒤 우리 국군이 다시 탈환한 날이다. 인천상륙작전의 대 성공으로 서울 수복을 이뤄 내기까지 수 도 탈환 작전에는 미군 외에도 우리 해병 대와 육군17연대가 참여했다. 우리 국군 이 미군과 함께 수도 서울을 탈환하기까 지를 정리해 본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인천을 평정한 상륙 부대는 서울을 탈화하기 위해 서울 외곽의 주요 도시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상륙작전 의 선봉에 섰던 미 해병1사단과 국군 해병

대가 김포비행장을 탈환한 것은 9월 18일 이다. 당시 김포에는 북한군 2개 대대 정 도와 인천에서 도주한 패잔병들이 합세해 아군의 상륙부대를 저지하기 위한 역습을 준비 중이었다.

오세동 대위가 지휘하던 해병대 3대대 정찰대는 9월 20일 새벽 5시 북한군 패잔 병들과 조우 격전을 벌여 큰 타격을 입혔 다. 하지만 오 대위를 비롯해 4명이 전사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병대 3대대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곧바로 지원에 나섰고 그날 밤 추가적 소탕 작전을 위해 157고지 에 도착. 다음 날인 21일 새벽 적 부대를 향해 박격포 사격을 퍼부었다.

이후 적군을 급습한 해병대 3대대 소속 9중대는 15분간의 교전에서 큰 타격을 입 혔고 12중대도 20일부터 김포 읍내에서 적 잔당을 소탕하는 등 작전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서울 주변의 병력 전개가 진행되

는 동안 미 해병과 국군 해병대는 한강을 도하, 그 일부는 영등포와 여의도비행장 으로 진출했다. 한강을 도하하기까지 적 의 저항은 완강했다.

서울에 주둔 중이던 북한군 병력은 2만 명에 달했고 이들은 한미 해병대의 한강 도하를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9월 19일 밤, 아군의 포격과 항공기의 공습을 이용해 미 해병대가 먼저 수륙양용 장갑차(LVT)로 한강을 건넜고 다음 날 아 침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시작으로 해병대도 2대대를 비롯해 1대대 가 한강을 도하. 21일 미 해병대원들과 함 께 능곡에서 수색 쪽으로 진격했다.

북한군이 견고한 진지를 구축한 서울 전 방의 104고지에서 해병대 1대대는 북가좌 리에서 공격을 시작. 적진에 돌입한 지 1시 간 만인 오후 6시 30분쯤 끈질긴 저항을 물리치고 점령을 완료했다.

104고지를 점령한 다음 날 새벽 북한군 이 대대적 화력을 동원. 역습해 왔지만 해 병대는 3시간에 걸친 전투 끝에 다시 이를 물리쳤다. 104고지를 빼앗긴 북한군이 마 지막 보루로 저항에 나선 곳은 연희동 고 지. 약 1만6000명 규모의 북한군은 이곳 에서 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었다.

해병대 1대대는 미 해병과 함께 9월 22일 오전 7시 20분 연희동 고지 공략에 나섰지만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돌아 설 수밖에 없었고 104고지로 철수했다. 하 지만 연희동 고지 전투에서 북한군도 큰손 실을 입었고 뒤이어 투입된 미 해병대원들 은 손쉽게 고지를 점령했다. 고지를 점령한 미 해병대원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연희동 고지 한 곳에 이미 국군 해병대 1개 중대 병력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 이들





은 이봉출 대위가 지휘한 해병대 1대대의 3중대원들. 1대대가 연희동 고지에서 전투 하던 중통신 두절로 대대 전체가 철수했지 만 이를 알지 못한 3중대원들이 공격을 계속, 고지 일부를 점령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한미 해병대가 서울 탈환을 위해 전투를 거듭하는 동안 9월 23일 미 해병 1연대는 영등포로 진출했으며 다음 날인 24일에는 육군17연대가 한강 남쪽의 신사 리로 진격했다.

육군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부대로 이듬해인 1949년 6월 20일 서울 용산으로 이동해수도경비사령부(수도사단의 전신)에 예속되어 있다가 같은 해 11월 15일 웅진 지구로 이동했다.

이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에 필사적으로 싸웠던 17연대는 각종 전투를 거친 뒤인 9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하게 된다. 17연대는 1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미군으로부터 장비를 지원받고 부대를 재편성했으며 임무도 알지 못한 채미해군 지원의 수송선 편으로 부산을 떠나 인천에 상륙. 서울탈환 작전에 참여하게 된다.

육군17연대의 도하 작전은 9월 25일 한 강을 도하한 미육군 7사단 32연대에 뒤이 어 개시됐다. 신사리 네거리 일대에서 1대 대부터 차례로 수륙양용 장갑차를 타고 도 하를 시작한 17연대 부대원들은 보광동~ 한남동 일대에 도착했다.

도하하는 동안 적은 76mm 대전차포와 박격포로 사격을 가했지만 별다른 손실은 없었고 적의 지뢰 폭발로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이었다.

육군17연대의 공격 목표는 348고지 확 보로 미 32연대보다 전방으로 진출, 아차 산 일대에서 차단 진지를 형성하는 것이 임무였다. 이렇듯 미군과 국군이 북쪽 방 면을 제외한 서울 대부분의 고지를 점령하 고 9월 23일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국군과 유엔군이 총반격을 시도하자 사기가 꺾인 북한군은 서울을 포기하고 의정부와 동두



천 등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 직 적지 않은 적의 병력이 시내에 남아 격 렬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서울 탈환 작전인 시가전은 이 때부터였다. 해병대 1대대는 북아현동에서 서대문·종로 북쪽으로 소탕 작전을 펼쳤으며 2대대는 동대문과 안암동·미아리 쪽으로 진출했다.

3대대는 9월 25일 서울역에서 적군을 격퇴하고 시청까지 되찾았으며 인천에 상 륙한 지 하루 만에 해병대 5대대로 편성된 김성은 부대도 북악산 일대를 평정한 후 시가전에 합류했다.

9월 26일 시가지 전투는 점점 가열됐다. 아현동 삼거리에서는 적의 저항이 거세졌 으며 북한군은 아현 터널과 아현동 고개 일대에서 결사 저항을 꾀하고 있었다.

서울역 광장을 사이에 두고 격전도 벌어 졌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육군17연대도 공격 목표 확보를 위한 작전을 전개했다. 광나루 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 선을 따라 348고지 공격 선두에 나선 17연 대 3대대는 이날 오후 용마산을 확보하고 아차산 능선을 따라 다시 북쪽으로 전진, 292고지를 점령했다. 이날 밤 11시쯤 대릉 쪽 간선도로를 따라 증강된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은 망우리 쪽 고개 일대에 육군17연대 3대대와 나란히 야간 방어 진지를 구축한 1대대쪽으로 역습을 가했다.

1대대 쪽의 일제 사격으로 3대대 진지 쪽으로 밀려간 북한군은 악착스러운 공 격을 가해 왔고 한동안 혼전이 계속됐다. 그러나 4시간여의 전투 끝에 북한군은 수 많은 사상자를 내고 후퇴했으며 미처 빠 져나가지 못한 상당수의 잔적들을 포로 로 붙잡는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공격을 받은 대대의 손실도 많 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 수복을 위한 시가지 전투의 마지막날인 9월 27일 미 해병 5연대와 해병대 1대대는 구조선총독부 건물인 중앙청으로 돌진, 오후 3시쯤 탈환에 성공했다.이에 앞서 오전 6시 10분 해병대 2대대 소속 6중대 1소대 대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중앙청 옥상으로 올라가 북한의 인공기를끌어내린 뒤 태극기를 게양하는 역사적인장면을 연출했다. 마침내 국군과 유엔군이 중앙청을 확보하면서 9월 28일 시가전은 종결되었으며 수도 서울을 북한 공산군으로부터 되찾기에 이르렀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아직도 전쟁의 상처로 매캐한 냄새가 배어 있는 중앙청의 중앙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맥아더 장군, 작전부대 각급 지휘관, 국회의원 및 정부 각료 등 수많은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환도식이 감격적으로 진행됐다.

당시 중앙청 경비는 해병대 2대대와 미해병 1연대 3대대가 맡았으며 경무대 경비를 위해 긴급 차출된 육군17연대 일부병력이 해병 1대대와 함께 중앙청 내곽을 맡았다

장엄하지만 간략하게 진행된 환도식을 마친 이튿날인 9월 30일 수도 탈환 국군의 주역이었던 해병대는 포성이 멎지 않은 북 한강 지역으로 이동했고 서울 경비는 육군 17연대가 맡게 된다.



유호상 국방저널 기자 (hosang61@dema.mil.kr)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이은 북진 작전을 두고 한때 극히 일부이긴 하 지만 학계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온 적 이었다

조목조목 따져서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그 확실한 근거를 찾기도 힘들지 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완전 왜곡돼 제 기되는 부분만을 짚어 볼 때 한 가지는 중 공군의 개입 등으로 전세가 어려워지자 핵무기 사용을 미 정부에 요구했다는 내 용이다. 한마디로 이 같은 일부 주장은 전 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 을 끌고 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가지난7월4일 배포한 군사사 전문 학술지 '군사 67호'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상호 박사가 '한국 전쟁기 맥아더 사령부의 핵투하계획'이 라는논문을통해이같은사실을제기한것

이 박사는 이 논문을 통해 전쟁 당시 숱

하게 작성된 미군 내부 자료 가운데 비밀 해제된 자료 어디에도 맥아더 장군이 한반 도에 핵무기 사용을 적극 주장했음을 보여 주는 문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핵폭탄 투하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박사는 나아가 맥아더 장군의 극동 군사령부는 1951년 1월 23일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에게 사실상 한반도 내 핵 사용 을 반대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지적한 뒤 지금까지 맥아더 장군의 핵무기 투하 요 구설의 근거로 인용돼 왔던 1950년 12월 24일 극동군사령부의 보고서도 전체 맥 락에 대한 이해 없이 의도적으로 오독돼 왔다고 주장했다. 용어와 이론의 과도한 오용을 지적한 것.

이 박사는 특히 맥아더 장군을 정확한 자료적 근거도 없이 논의의 전개를 감정적 으로 서술한 한 학자의 주장에 대해 '지적 사기'라고까지 했다.

원자폭탄 사용 발언은 10월 중순부터 중 공군의 개입이 확인되면서 전선이 심각하 게 돌아가자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 11 월 30일 가진 기자 회견에서 터져 나왔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중공군의 개입에 따른 유엔군의 압록강 철수에 대해 전쟁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기자 회견을 열었 다. 트루먼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미국 은 한국에서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 하다면 모든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기자가 여기에는 원자폭탄도 포함되느 냐고 질문하자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모두 포함된다"고 대답했다. 또 핵무기 사용을 적극 고려하 고 있는지를 묻자 "핵무기 사용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고려해 온 일"이라고 말했다.

트루먼 대통령의 기자 회견 내용은 12월 1일 전 세계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으며 영국 노동당 소속의 애틀리 수상은 만일 미국이 한국 전선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영국 군의 철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같은 당소속국회의원100명의 항의 편지를받았 다. 애틀리 수상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설명 을듣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기까지 했다.



전세계가 놀란 가운데 미국은 부랴부랴 '해명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어 떤 무기를 보유하는 행위 속에는 언제나 그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묵시적으로 포 함돼 있다. 그리고 오직 대통령만이 원자 폭탄 투하를 승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한반도 핵무기 사용 불가

이 박사는 이 논문에서 미국은 소련이 1949년 핵실험에 성공하고 공식적인 핵 경 쟁시대를 열자 대소 전쟁 계획의 구체적인 준비를 위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마 련하던 시기에 터진  $6 \cdot 25$ 전쟁에 주목했다.

북한의 남침이 소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항상 소련의 행보를 주시했던 미 국으로서는 6월 25일 블레어하우스 대책 회의에서 중국 상하이(上海)에 기지를 두 고 있는 소련 제트기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경우 원자폭탄 사용이 필요하다는 첫 공식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후 실제로 6 · 25전쟁이 발발하자 핵무기 사용이 여러 차례 거론됐다는 학계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6 · 25전쟁에서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 사용이 계획됐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미육군부와 공군부가 작성한 문서철을 통해 이 박사는 확인했다.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육군부산하 작전참모부는 1950년 7월 단계에서 이미 한국에서의 원자폭탄사용을 검토했다. 작전참모부는 7월 7일정보참모부에 한반도에서의 원자폭탄투하에 따른 세계와 소련의 반응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보참모부는 7월 13일 회답에서 ▲한국에서의 핵 사용은 서유럽과 라틴아메리카·중근동, 그리고 극동의 친미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정치적이고 선전적 차원에서 소련을 유리하게 할것이며 ▲소련 군부의 반응이 어떨지는 정보 차원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절대무기로 평가받고 있는 핵무기는 확실한 상황에

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핵무기 사용 을 반대했다.

이 보고서만을 보더라도 맥아더 장군의 핵폭탄 투하설은 근거를 잃게 된다. 맥아 더 장군이 7월 9일 긴급 메시지로 당시 합 동참모본부 차장이었던 리지웨이에게 원 자폭탄 사용에 관한 전문을 보냈다는 것도 7월 13일 정보참모부 문서를 통해 단순히 맥아더 장군이 자기 관할(극동군사령부) 아래 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그가 초기 핵무기 사용을 적극 주장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1950년 7월 27일 공군부가 작성한 보고 서 최종 결론안 4개항을 보면 한반도에서 의 핵 사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알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대통령은 북한인들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리는 연설을 해야 한다 ▲대규모 작전을 알리는 선전물을 준비해야 한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중공군 참전과 핵무기 투하 계획

6·25전쟁 초기의 핵무기 투하 계획은 불가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전세 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급변한다. 이때 핵무 기 투하 계획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된다.

1950년 12월 미 육군의 작전 분석 전문 가들이 '한국에서 원자폭탄의 전술적 사 용' 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1951년 1월 맥아더 장군의 극 동군사령부는 이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메모를 콜린스 육 군참모총장에게 보낸다. 메모에는 "한국 은 산악 지형으로 핵무기 효과가 제한적이 고 유엔의 목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극동 군사령부는 한국에서 핵무기를 즉각 전술 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추천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영국 외무성 자료를 근거로 1950년 12월 9일 당시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핵 무기 사용을 위한 재량권을 요청했다는 주 장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인 문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부정했다.

맥아더 장군의 26개 핵무기 요구 내용 도 사실과 다르다고 이 박사는 주장했다.

미 합참과 육군부 작전국에서 소련의 참 전에 대비한 비상 작전 계획에 따른 핵무기 사용 우선 목표 지역을 맥아더 장군에게 선 정해 주기를 요청, 소련의 참전에 대한 보복 공격보다 소련의 전쟁 잠재력을 감소시킬 목적에서 타격 지역 목록을 제출했다. 이목 록은 소련과 중국 영토 21개 지역에 26발의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들어 있다.

다만 이 목록은 극동군의 전략 목표 조 사와 함께 연합번역통신부에서 이루어진 일본인 송환자들의 심문에 의한 것으로 구 체적인 정보와 자료가 주어지면 타격 지역 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서를 통해 볼 때도 한반도 지역에 핵무기 투하 지역은 없었으며 맥아더 장군 이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26발의 핵무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육 군부 작전참모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한 것 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 박사는 밝히 고 있다.

6 · 25전쟁에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는 문제에 대 해서는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 핵무기 사 용은 극동전쟁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미소 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박사는 '맥아더 장군이 코발트 등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중공군·소련군 이동차단 벨트를 주장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 구상은 앨버트 고어 상원 의원의 아이디어에서 처음나왔고 1950년 11월 미육군부 작전참모부의 보고서에도 등장하지만 같은 해 12월 극동군사령부 작전 분석에서 이 방안이현실성이 없다고 오히려 비판했던 문서가남아 있다"고 밝혔다. [Perese]

### 자유 평화 소중함 일깨우는 산교육장

#### ■ 연간 30만 명 찾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글 유호상 국방저널 기자 (hosang61@dema.mil.kr) 사진 **송영환** 국방저널 기자 (yhsong@dema.mil.kr)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청량산 기슭의 대지 2만4347㎡ (7365평), 건평 1793㎡(542.5평)의 터전으로 1984년 9월 15일에 자리 잡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이 기념관은 당시 '올

> 해의 건축 대상'을 받아 건물 자체가 예 술이요 걸작품으로서 조형미와 공간 구상 등을 엿보기 위한 건축 관계자의 발길이 지금까 지 이어지고 있다.

> > 마지막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14일 이 기념관을 찾았다. 그러나 기 대와는 달리 한반도의 전세를 역전시키

는 계기를 마련한 인천상륙작전 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관에 전시된 작전 당시 유물이나 기타 전시 물은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부 전시관에는 6 · 25전쟁의 발발 원인 에서부터 휴전까지의 과정을 패널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당시 피아간의 무기류와 남 북한 군인 복장, 미군 복장, 중공군 복장 등 309종 596점이 실물 · 복제로 전

시돼 있다. 6 · 25전쟁 전황판과 인천상륙작전 디오라마와 상 륙주정 · 전함의 모형, 맥아더 장군 기념물과 함께 6 · 25전쟁 의 원인, 인천상륙작전,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등을 영상물 로 감상하도록 돼 있다.

야외 전시장은 썰렁하다는 느낌 그대로였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위용을 떨쳤던 상륙주정 등을 포함해 북한 고사기관총 등 10종 13점의 장비가 전시돼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기념관의 조창호(55) 관리소장은 "솔직히 전시물이 많이 부 족하다. 당시 작전 참전 용사들의 유품 기증이 절실한 실정" 이라며 "참전 용사들의 연세가 70대 후반, 80대 초반으로 이 분들이 돌아가시면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도 퇴색되게 마련이 며 유족들은 유품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데 문제 가크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현재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 중이며 기념관의 리모 델링 작업도 적극 구상하고 있다. 기존의 기념관들이 대체적 으로 무거운 느낌을 준다는 점을 인식,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 공간' '테마 파크' 등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기념관은 연간 30만여 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 국인과 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도 연간 2만여 명이 기념관을 찾고 감회에 젖기도 한다고 조 소장은 밝혔다. 특히 참전국 관 광객들은 모든 전시물을 차분히 눈여겨보면서 인천상륙작전 의 의미와 참전의 숭고한 희생 등을 더듬어 눈을 붉히기도 한







다고 조 소장은 전했다.

여하튼 나름대로 인천시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 기념관은 턱없이 부족한 전 시물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문 화 행사 등을 연중 개최하면서 시민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처음 가져 호응을 얻었던 인천상륙작전 도보 기념행사를 올해도 가질 계 획이다

9월 20일이나 21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월미 도 상륙 지점까지 16km를 참전 용사들과 함께 걷는 인천상륙작전 전적지 도보 순례를 위해 현 재 120명 정도의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이와 함께 매주 일요일마다 무료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1년 15회 정도 야외 무료 문화 공연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 관리의 한계로 전문 연구 인력이 없다는 기념관 운영의 맹점으 로 문화 행사의 다양화를 꾀할 수 없을 뿐더러 예산 문제로 리 모델링도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조 소장은 토로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기념관 현실은 전쟁 당시 물품 부족 으로 복제품이 대부분이고. 당시 유물 관리의 중요성을 제 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에 자료 또한 미미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현실만을 탓할 수 없는 노 릇이지요. 참전 용사 분들의 물품 기증 의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기념관 관계자들의 물품 확보 노력도 계속돼야 한 다고 봅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사실을 문화적 차원에서 기념. 보 존함과 동시에 참전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유민주 수호의 실증적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기념 관은 전후세대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현장 학습의 교육장으로 25년 가깝게 청량산 기슭에 우뚝 서 있지만 왠지 모를 외로움의 퇴색빛을 띠는 것 같은 느낌을 지 울수 없어 58년 전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마저 점차 그 빛을 잃 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본다.

한편 올해로 58주년을 맞은 9 · 15 인천상륙작전이 9월 9일 인천 앞바다에서 재현된다. 건국 · 건군 60년을 맞아 해 병대사령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해마다 개최하는 인천상륙 작전 기념행사를 올해는 첫 상륙 지점인 월미도 해안에서 치 르기로 한 것

올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상륙작전 재현에는 해군의 1만 4000톤급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과 한국형 상륙장갑차 (KAAV) 24대, 상륙용 공기부양정(LSF) 2대, 헬기 6대 등이 동원되고 해병대원 1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해병대원들은 월미도 앞 해상에서 상륙장갑차를 타고 연 막을 헤치며 해안 150m까지 접근해 해상 퍼레이드를 벌일 계획이다. Defense





### 전사 분석

### 모택동, 유엔군 인천상륙작전 감행 예측

#### 전력 열세 북한군 전의 꺾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관

1950년 9월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가 성 공시킨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사에 길이 남을 전투로서 6 · 25전쟁의 판도를 일거 에 뒤바꾼 몇 가지 중대한 전략적 의의가 있었다. 첫째. 수도 서울 수복에 유리한 전 투 국면을 조성해 인천~서울 지역을 수중 에 넣음으로써 유엔군의 사기를 진작시킨 반면 북한군의 전의를 상실 혹은 저하시켰 다. 둘째. 적의 보급선과 후방 지원로를 차 단함으로써 남쪽 전선에 고착되어 있던 적 의 전투력을 마비 상태에 빠뜨렸으며 결국 북한군이 38도선 이북으로 퇴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셋째,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전쟁 개입을 위한 사전 준비로서 중국군의 한중 국경 지역 이동에 박차를 가하게 만 든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북한군이 이 작전에 대한 방어에 성공했 더라면 6 · 25전쟁은 달리 전개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소련 · 중 국측의 공산 진영은 사전에 이 작전의 낌 새를 탐지하고 있었음에도 방어에는 실패 했다. 당시 모택동은 전쟁 발발 직후인 7월 초에 이미 유엔군의 상륙 시기와 지점 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다. 북경 주재 소련 대사 로신이 1950년 7월 2일 주은래로부터 한반도 전 황에 관한 중국 지도부의 군사 정세 브리 핑을 듣고 스탈린에게 보고한 전문에 따르 면 모택동은 "미국이 일본 점령군 12만 명

가운데 약 6만 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 할 수 있다면 부산 · 목포 · 마산 등의 항구 로 상륙한 후 철로를 따라 북진할 수 있다" 며 "북한군은 이 항구들을 점령하기 위해 속도를 더 내어 신속히 남쪽으로 진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모택동은 "서울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 지역에 견고한 방어 진지를 쌓을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미군이 이곳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 중국, 북에 방어책 마련 조언

6월 말 내지 7월 초에 이미 미군의 인천 상륙을 예견한 모택동의 선견지명은 그의 풍부한 군사적 상상력에 기인한 직관에 따 른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맥아더가 6월 말 친히 한강 전선을 시찰하면서 불리 한 전세를 뒤집을 반격 작전을 구상한 시점 부터 7월 7일 반격 작전을 위해 본국에 전 보를 치고, 또 적의 주의력을 흩뜨리기 위 한 기만 작전과 실제 북한군을 공격하기까 지의 모든 과정은 모택동이 인천상륙작전 을 예측한 시점 이후에 진행돼 사전에 정보 가 누설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달리 설명할 합당한 해석이 없다.

모택동이 미군의 인천상륙을 직감한 것 은 그가 전쟁이 단기간에 쉽사리 끝나지 않고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판단한 근 거가 됐다. 또한 중국군의 수송 수단과 이 동 거리 등을 감안, 전쟁 초기부터 중국 인 민해방군 가운데 정예군 25만여 명의 병 력을 압록강 대안으로 이동시키고 9월 말 까지 군사 개입에 필요한 모든 작전 준비 를 마치도록 한 배경이었다.

동시에 모택동은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작전실 소속의 작전 요워들에게도 여러 차 례 "6·25전쟁의 전황 변화를 주의해서 관 찰하라"고지시했다. 이에 따라 뢰영부를 비롯한 작전실의 참모들은 8월 중순 수차 례에 걸쳐 난상토론 형식의 정세 분석을 한 결과 "미국은 6 · 25전쟁의 전황을 뒤집으 려고 궁리하고 있을 것"이며, 유엔군이 인 천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미군이 인천으로 상륙하면 9월 15일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뢰영부는 이 판단을 8월 23일 주은래와함께 직접 모택동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로 전쟁 발발 직후부터 미군의 상륙 반격 가능성을 예측해 온 모택동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직감을 확신했고, 그 즉 시 북한과 소련에 미군의 인천상륙에 관한 중국 지도부의 판단을 통보했다. 특히 모 택동은 북한 지도부에 자신의 판단을 전해 주기로 하고 주은래-예지량(북한 주재 중 국 대사) 라인을 통해 김일성에게 특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기 북한 특사의 중국 방문은 최소 두 차례 이상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해 보면 김일성이 먼저 내각 부수상 박헌영 일행을 북경으로 보내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파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중국 지 도부가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한 듯하고. 그러자 그는 모택동의 특사 파견 요청에 응해 북한군 부총참모장 겸 정보국장인 이 상조를 북경에 급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조의 회고에 따르면 모택동은 이상조 를통해미리 8월과 9월 상순사이 북한지도 부에 방어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북한군을



즉각 낙동강 전선에서 철수시켜 인천에 방어 진지를 구축, 방어전에 돌입하도록 대비하라 고최소 두 차례 이상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한다. 북한군이 너무 오랫동안 남쪽에서 포 위망을 형성하고 있으면 유엔군은 더욱 견고 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후퇴 해유엔군의 포위망을 느슨하게 만들어 방어 형태를 흐트러뜨린 뒤 하나하나씩 각개격파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중요한 점은 공격에서 방어로 전화해 즉 각 후퇴, 인천상륙작전에 대비하라는 모 택동의 메시지가 박헌영 등의 북한 측 방 문단을 통해 김일성에게 전달됐다는 사실 이다. 즉 모택동은 이상조를 접견한 자리 에서 미군이 해상으로 우회해 북한군의 배 후지로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 서 예상 가능한 상륙 지점으로 세 곳을 꼽 았는데 그 가운데 인천이 포함돼 있었다. 또 직접 지도로 인천을 가리키면서 유엔군 의 상륙이 유력한 곳이라고 강조한 후 한 시바삐 김일성에게 이 점을 알리고 미군의 상륙을 저지할 방어책을 마련토록 조언했 다. 이상조는 자신이 9월 8일 김일성에게 모택동과의 담화 내용을 전했으나 김일성 은 모의 충고를 건성으로 흘려들었고. 그로 부터 1주일 후 모택동이 우려한 미군의 상 륙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상조의 보고보다 10여 일 빠른 8월 28일에 이미 주중 북한 대사 이주연 등의 북중 외교 라인을 통해 인천상륙작전에 관한 상기 모택동의 충고 와 대책을 전해 듣고 상륙작전에 대비하라 는 이른바 '반상륙방어명령'을 내리고 방 어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 북한군. 인천상륙작전 7일 후 전격 후퇴

김일성은 특히 자신이 예상한 상륙 지역 인서해안의 인천·초도·남포·안주·철 산·다사도와 동해안의 원산·함흥·신 포 지역의 해안 방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그는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 의 제1선은 북한군이 방어하고 있지만 이 지역 이외 내무기관이 책임지고 있는 지역과 제2선에 대해서는 기존의 내무원들과 자위대원들로는 해안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각도가 적극적으로 모든 도민을 해안 방어에 참여하도록 조직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해안 지역에 참호를 파고 빈틈없는 방공 대책의수립과 자위대원의 조직확

충 및 무기 · 탄약 지급, 주민 소개 등의 후 방 방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나름대로 유엔군의 상륙에 대비했다.

그렇지만 김일성은 중국 지도부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전해 듣기 전인 9월 이전까 지는 상륙군의 규모와 상륙 지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대충 동서 해안으로 짐작했 을 뿐이다. 그가 초기 한동안 인천 지역 일 대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지 않고 대충 예 성강과 금강 사이의 해안선 방어에 집중한 이유였다. 그가 유엔군의 상륙지와 목적 지가 인천~서울 지역이라는 사실을 제대 로 알게 된 것은 상기 9월 8일 이상조가 전 해 준 중국 지도부의 충고를 전해 들은 후 였다. 이 방어 임무를 맡을 부대로 '인천 방어지구경비사령부'를 창설했고 이 지 역을 크게 3개 지역(금강 하구~삽교천. 삽 교천 하구~고간리와 부평. 부평~예성강) 으로 나눠 방어토록 했다.

그러나 곧 김일성은 한국군과 미군이 인 천으로 상륙하기 직전인 9월 13~14일경 또다시 인천에 주둔하고 있던 제9사단 예 하 일부 병력과 서울 주둔 제18사단마저 낙동강으로 내려 보냄으로써 유엔군의 상 륙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최후의 승부처로 생각한 낙동강 방어선 돌파에 치중한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했다.

한미 연합군이 인천상륙을 개시한 후에 야 연합군의 전략적 의도를 알아차린 김일



성은 9월 17일 긴급히 조선노동당 중앙정 치위원회를 소집. "인천 사수" "서울 사수" 를 외치며 황급히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을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예비부대 창설 명령에 따라 철원에서 예비 부대로 편성된 1개 여단과 사리원에서 편 성된 1개 독립연대를 긴급히 경인 지역에 투입했다. 낙동강 전선으로 남하하던 북한 군 제18사단도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천안 부근에서 중도에 인천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 사실들로 보아 김일성은 낙동강 전선에 대한 총공격에 골몰한 나머지 인천 지역 방어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나 혹은 생각대로 방어가 여의치 못 했던 듯하다. 결국 그는 1주일 가까이 방어 하다가 대략 9월 23일부터 북한군을 전격 적으로 후퇴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모택동의 권고로 인천상륙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유엔군의 인천상륙과 서울 진격을 저지하지 못한이유는 그가 사전에 인천~서울 지역에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라는 중국 측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1차적 원인이었다. 하지만설령 그가 준비를 제대로 했다하더라도 어차피 북한군이 안고 있던 병력의 열세, 열악한 무기 장비, 제공권 상실, 후방 군수물자의 보급 미비 등으로 인해 유엔군의 인천상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당시의 객관적인 정세였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